0

住 以 五 十 四 平 四 平 四 字

⇒ 大十六日のコピスエル 関新が立けならい脱嚢が ま十六日のコピスエル

で選ぶ

一百八十件

今中世 故郷の分消息のフラー 一世の 一世の

The Korea Baily News. Seoul, Korea, Thursday, Dec. 22nd, 1925. THE PROHIBITION OF ALCOHOL AS A BEVERAGE. B. Rim Eui S.k. 111

A'eshol decreases or depresses the higher centers of will, self-central, reason and judgement, and sets people back on the animal plane. In removing the normal re-traint exercised by the brain over the sexual desires alcohol is the chief means of leading youth into immorality. The insane asylum is a splendid place to

view the final results of alcohol in the subject or his progeny. Habitual drinking of alcohol not only produces bad results on the individual alone but leads to hereditary al no malities in l is descendants. It is only too true, inde d, as psychologists and neuro ogists prove by statistics, insanity, idiocy and infanti ism, a'l d e to alcohol, a e diseases which destroy families and cause the fall of nations, In conclusion allow me to speak of a'c hol

from the ec n mic standpoint. In the year 1923 the government statistics show us that the total amount of money wasted in Korea in drink amount d to 49.347,675Yen. In the year 1924 in Scoul alone the total : mo ut of morey spent for alcoholic liquors W.s 1,970,326 Y.n. Don't you thick this is quite

a sum of money we are spending for nothing? Scoul for public schools? The running expenses, last year, of the twenty seven Korean and Japanese primary p blic schoo's were 807,964 Yen.

Please notice the difference; we are spending more twice the smo.nt on alcoho', that we are

pending on the education of our children. Shall we continue this foolishness? It mins rs physicaly, mentally, conomically, e'uctionally, spirituall, and nationally, and it is t'e great enemy before is which we must fight in o der to project our children as well as our selves from the terrible end for the druker, as predicted in prove b, Chap'e 23 Verse 21 'For the d unkard and the glu ten shall come to poverty; and drowsiness will clo he a man with rag".

外黎觀 遺 (完)

□コでい面約5分割フタス 「女川」女川停車場待合量3 「女川」女川停車場待合量3 만할네

计押가는

◇黄海道延安邑3上前3.50戸市へ電話が架設可で本月二十五日の電話が発設可で本月二十五日

二頭雲捕獲計分け口引(推陽) 外狩獵計中八連日一個所3分約 協都上北南五米里岩市縣北麓 3分約 場所3分約 東西下九萬里獵師金惠玉の 2分別 東西下九萬里獵師金惠玉の 2分別 東西下九萬里獵師金惠玉の 2分別 東西下九萬里獵師金惠玉の 2分別 東西 200 東西 2

北田浦野伽組合臨時總會置去 北田浦野伽組合臨時總會置去 成氏家町分開催計立臨時總會 京志者到同情点求計기至次職 有志者到同情点求計기至次職 和合長股成大▲副組合長祖 全成人家町分開催計立臨時總長 主成▲顧問辛内烈▲總務辛芝 主成▲顧問辛内烈▲總務辛芝 全面根 假正敏 金音順 金 幸順根 假正敏 金吉順 金 幸順根 假正敏 金吉順 金 幸順根 假正敏 金吉順 金

等行列呈準備中の라ら中(平準) 財験のメニタ番年末の火災機防防隊のメニタ番年末の火災機防防隊のメニタ番年末の火災機防

全国自働車運動師問盟5分に新年勢頭量期から新陣容量整済に新門會館内の分開催か可中に回當日の三全部出席が7番が引いた回當日の三全部出席が7番が引いた日の

◇平規明年後第第7 明年原平 理府預算組成の以完了回る表二士 日第一回海波養総計の、シ山境第 額の昨年度實行額보中シ十二三 高頭の減計の、い口中(平별)

巡 回 公

演

觀劇料

る請求

服安金組

埋事不正事件

時にはみきゅ

이웃 지난십칠일밤 평양부 하수구리 다는바 이케그뎐하는바를 대장 에 배시십구번디 리승무(平鹽府 두건대 케면공장이 원고장소에 유지나 미본(종과 의 기보 이 이 시가다인 다 이 이 옷사람들이 이 비디 김 승 (金融館) 의 집회 한의 투자 이 비 시기 의 기보 하 이 비 기보 하 이 비 기보 하 이 비 시기 의 기보 하 이 비 시 시기 의 기보 하 이 비 시기 의 기보 시기 의 기보 이 비 시기 의 기보 시기

放火窃盗犯

일

명한 영화의 소작료미남 명한 영화의 기계미수를 삼 명한 영화의 소작료미남 연한 영화의 소작료미남 연한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되고 많이 들어보이 되고 많이 들어된 이 자기 있다.

자자의 독업을보여 청상 과부 호비사의래도는 식아비되야 사는 참아본수업청스며 되군다 사무십이털어 어른간한 상취를 하고 이십미만의취되에게 재취 다화(鵬和)가 못되는/취람에 피 도화(鵬和)가 못되는/취람에 피 자의교통이야 발일/기도 업거니

을 밟는듯하며 그중에 조율 낫다 는 뱃재아들이 보통한 교문안해 발모들여 노치안로 뿌리을 한다 하야 지수의 일본이로와다 갓다하 며 강습소한아인권히 못따치고 대한교단소를부친 양복만 입고 지내니 멋진색용의지 알수업는가 운대 요사이 에와서 다시리상력 안해를통진한다고체의

世紀 | スリート メルロック | 大学 | スリート | スリート | ストート | ストートート | ストート | ストートート | ストート | ス

어린皆をい己立七年の月

全 网络贝里哥的英母

재료들하이 피해된 이웃에서는

一、時心の1時の1時の1時でである。 なおの1年は1年である。 なおの1年は1年である。 なおの1年は1年である。 なおの1年に1年である。

悲絶

む

母

女

の

死

주머니 플럴어됐음식내노 마 이번에는이놈만바드시고 자에워주세요』하였다 아니그 등의 생겨로운이소리는 참자 당치 다시기자》를대한 주인 멋졌다 나(기자)를대한 주인

원이러 만족지못하다고 기생자 하여 구류이니벌금이나 멋변의 당하역 것만 감수롭더욱 가심한테로 한아는 경찰의 눈을 피우 다는 자 하여 경칭인천등이에 종정을 감 하여 수원원의 부채롭지다는 자 이 수원원의 부채롭지다는 자 기업는 소식만 나날이들리고 또

나 보는 보고 의 프로 등 수 참하여 기 가당에 크 등 파를 이르기 는 증이 가당에 크 등 파를 이르기 는 증이 가당하는 듯이 수 명히 눈물 들을 된 다 아니라는 듯이 수 명히 눈물 들을 된 다 아니라는 이 어디 의로 음을 토 다 나 불성한 소리 어디 한 아는 일마다나 호화로운 곳에서 우리난의 무 오소 리 어디 그 집에 그 칠뿐이라?

와 들人재생자아들이 역시증간에 의호(羅姆)을하야 이중 사람들의 집호을 식키역도

(最出せ한けらず(子間)

가있었다하며원50의당배물에서

오목(五木)(三)이 지난십구일 조)이사는 홍치종의이터(二女)

첫자 그집에 그집뿐이라? (보청일리자)

倉庫窃盜一名

오후한시장에 자긔집되 유볼에 비귀족었다는대 그자살한 내용 은 자세히 논알수업스나 항상비 관이로 지내오므셔 동일오친구 시장에자긔오리비되는 상지(尚

前妻所生殺害犯

우아들쓰고나서 리케 여섯번들하고 종자도비 대고 대급들박고 정작다매백 아총대비(總代数)가이십천장 오 봉조 整煙)는 연조도급일 누에 십천ళ리일봉식주고 대 을버게하는바 그루교리

하고너무나봅시한대한다고대단 히분개하는데지안테니의무한되 는혹시장의 그런날 심말일에장 이로 오목의호치를 구하고자

지장작한것이 내역보낸 종사의 지장작한것이 대적보낸 종사의 이십근이 되었는데 그대급이 다음자 감과 총대비와 봉초감을 하다가지고 보수 대급이 삼십오킨 바다가지고 보수 대급이 삼십오킨 의존하면 보수 대급이 삼십오킨 이 육원뿐임으로 기가막혀 무원뿐임으로 기가막혀 되는지 하다 보수 대급이 등장 당하면 하다 되었다.

、生徒의質問の登應対から致放けの別打め別は、建行な扱行の別打が別は、建行な扱いの別には、大山の生徒が発生に対していた。

各署必死活動 强盗事件頻發豆

智)の野世關係に対し、火磨公司の鹿白系人等のみに、火磨公司の鹿白系人等のみに、火磨公司の鹿白系人等のみに、火磨公司の鹿白系人等のみに、火磨公司の鹿白系人等のみに、火磨公司の

出いやける

정남장시군성래면대마리박창교 역사 시교 등 등 등 연기 시 등 교육 등 의 창고등 등 등 연기 사업 등 하다 나다 가 지 나이 십일 방 교투 시 등 명상 다니다 지 나이 십일 방 교투 시 등 명상 다니다 지 나이 십일 방 교투 시 등 명상 다니다 지 등 교 한 경 등 등 연기 시 등 교 한 경 등 연기 시 등 연기 시 등 교 한 경 등 연기 시 老處女自殺 하야 당자되는자를 보러갔다는 즐가하기가 실리하였다는바 이 가리자살을하였다는자 그집에서 도알수업다고하더라(송파)

蔚珍公普生 盟休

一、些少党過失の退學音を対す 정청된다를 여러번 뒤집어서삼 목청단다를 여러번 뒤집어서삼 무쌍한시외청계원(清溪川)부근 의소아 참살사건의 병인이한아 도삼히지 아니한요사히에 그곳 일이여시외송인면(崇仁面)에또 가 가경찰은한사하고정계를하는종

家庭不和豆 少婦自殺

사 하 수 에 당번(當番)한 생도네사람이 소취할것을 이귀 버리고 그냥갓첫든바 그이를 지내고 월요일에 일으리권의 대산은 소제아니한 생도등을무수히 난라한 후 꽁부도아니식이 고 세네시간을벌(間)을 씻우든 연부 (面部)를 넘우마귀 안동을 건말 수가업 위한을 보고도리형 어서죽 으라난등

成歓面が火災

창미병조등이보레아퍼중독자이바 미병조는 도망하다두병에지

今中央校友完年總會 시내중앙 고보교우회에서는이심륙일으로 다섯시반에병월판보렴에서망면 원이오다수참성을바란다고

수勞腳點四氏慰安會 조선도동 당사건으로 오래동안 수감되며 의명우사사의 위안회를 실패사십번디로동당회의 실패사십번디로동당회의

전 5 시 첫 사라 자트라발되기? ▲ 존정신차리 느게 첫털가하는 것 으면 민실반의 하마 다란다 滿洲踏查

자 하다 하다 그 너지를지 기자하며 약간의의복을 준비하다 도축성습으로 할수업시 그녀고 무너가 죽이었은 모도다그녀자 가관목이라고 아니한 류모 棚果 기관목 기고 이 지지하다 더 이 기가 하다 되지 않는 이 지지하다 되었다면서 되지 않는 이 지지하다 되었다.

하다시람으로하여급달러나오게 하고그름을라시킨기최승차의학 이참입하였으바 발각되어 학급 명양진찰치에서 취료를 벗느중 이라더라(평양)

리 마음내 그당시에송소녀죽이 턴광정을 몸소 연극하듯이 명출 하면서 자백을 하였다는바일간

2 三月間の田常の 2 三月間が四 大震声年會의民族 2 三月間が四 大震声年の日 2 三月間が四 大震声年の日 2 三月間が四 大震声年の日 2 三月間が四 大震声年の日 2 三月間が四 大震声年 2 三月間が四 大震声 2 三月間の日 2 三月間に 2 三月間に 3 三月間に 3 三月間に 3 三月間に 3 三月間に 3 三月間に 3 三月の日 3 三月間に 3 三月の日 3 三月間に 3 三月の日 3 三月間に 3 三月間に 3 三月間に 3 三月間に 3 三月間に 3 三月間に 3 三月の日 3 三月に 3 三月

등의 불평이점점점하게서 돈안 내고 그때로라라고 동쌀을때도 가라다니겠다는사람도있다▲고 당한 첫번면사무소시키는 실역 도비하여온겠이 이케야 발식된 것인이미다아는바이지마는▲그